

대학의 구조조정과 자유전공학부



안 병 만
한국의국어대학교 총장

최근 대학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몹시 당황스러운 처지에 봉착하고 있다. 과거 20여 년간 산업화로 인한 인력 수요에 맞추느라 모든 대학은 몸집을 불릴 것을 요구받아 왔다. 웬만한 기준만 맞추면 대학 설립인가도 쉽게 나왔다. '80년대 이후 대학의 숫자는 거의 두 배가 되었다. 학생 수는 그 보다도 더 증가하였다. 우리 대학도 '80년대 초에는 전체 학생 수가 3000명을 맴돌았다. 그런데 현재는 1만 5천 명을 넘는 대규모 대학교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부문에서 기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낸 우리 국민은 다른 것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반도체 부문 세계 1위, 핸드폰 수출 세계 1위,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와 같은 일부 약진은 국민의 기대심리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두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소득 수준이 1만 불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것이 교육 탓인 것처럼 생각들 하고 있다.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적 현상도 대학 수준의 미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대학을 손가락질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은 기업들대로 자기들 기준에 맞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 탓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들은 산업화 초기 시대와 비교하면 놀랄 만큼 발전을 이룩하였다. 문제는 대학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발전의 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양적인 발전에 비해 질적 관리에서 부실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높아진 기준에 부응할 여유도 주지 않고 사회 환경이 갑자기 변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60~'70년대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의 증가로 대학 수요가 늘어

“

자유전공학부의 골자는 입학의 문을 자유롭게 해주는 대신
 졸업의 문은 스스로 적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은 입학은 자유롭지만 1년 뒤 모색 기간을 거쳐
 2학년 진급 시에는 자기의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가 '무전공'을 의미한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에서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

나던 '8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다.

대학 정원과 입학 지원자 수의 괴리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괴리를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에 정원 조정을 통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본질상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학들은 학과 정원과 사회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오랫동안 인지하여 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사회적 압박이 있기 이전에 우리 대학도 자발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학내 이해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대학에서 합일점을 도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90년대 말에 이미 합일점 도출을 시도했다가 두 번이나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2002년 총장이 되면서 대학 발전의 동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과거의 실패를 스스로 극복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키워드는 변화였다. 그런데 변화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아무리 좋은 방안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교수를 주축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에 학교가 마련한 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제로에서부터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교수들의 모든 의견을 들으면서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자유전공학부의 신설이었다.

자유전공학부의 골자는 입학의 문을 자유롭게 해주는 대신 졸업의 문은 스스로 적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몇몇 다른 대학에서 이미 도입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문제점은 입학이 자유로운 대신 졸업 때까지 소속학과를 만들어 주지 않은 데 있었다.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은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입학은 자유롭지만 1년 뒤 모색 기간을 거쳐 2학년 진급 시에는 자기의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가 '무전공'을 의미한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

“

대학은 학문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 따라
그 수요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학이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지혜는 결코 한 가지의 관점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이라면 지혜도 바로 그러한
다양한 관점의 상호 존중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

에서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학부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독립된 자유전공학부를 두어 학부장으로 하여금 각별히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한 행정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 한시적 탐색 기간을 주어 자기의 평생 전공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한 발상의 전환에 있다.

우리 대학에서 자유전공제는 앞으로 2년간 실시될 것이다. 2년 뒤 학생들의 선택 결과를 기초로 학과정원을 조정하기로 모든 교수들이 동의한 바 있다. 현재 자유전공학부 정원은 각과에서 15%씩을 염출해서 만들었다. 2년 뒤 자유전공 선택 결과에 따라 최고 30%의 증원을 배정받는 학과가 있고, 15% 감소되는 학과도 있게 된다. 정원이 감소되는 학과에서는 심정적으로 섭섭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자유전공학부에 의한 정원조정은 변화의 충격을 완만하게 해 주는 완충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교수들은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은 자유전공제를 통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우산 없이는 학과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점을 모든 교수들이 동의한 것이다. 정원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학사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원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동시에 학사제도개선위원회도 가동하였다.

대학은 학문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 따라 그 수요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학이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지혜는 결코 한 가지의 관점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이라면 지혜도 바로 그러한 다양한 관점의 상호 존중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 대학이 자유전공제를 통한 정원 조정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은 대학의 본질인 다양성을 서로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